

고1 한국사2

일제강점기 연표 위치형 57제

천재교육 정요근 교과서 기준 · 일제 통치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STEP 1

45문항

사건 위치 찾기
자료 · 인물 진술 · 상황 서술 로
테이션



STEP 2

12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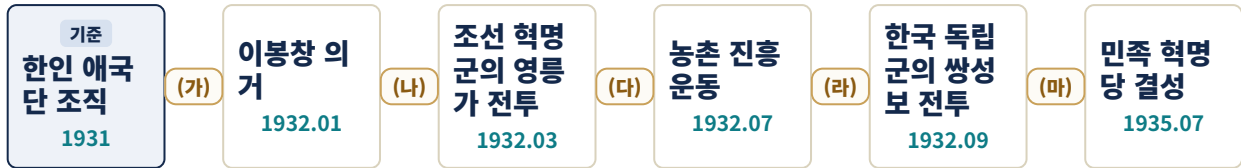
자료 배열형 + 보기 판단형
6세트 복합 문항

- ✓ 사건 이름만 외워서는 안 풀리는 문제 — 자료·진술·서술을 읽고 정확한 '위치'를 찾도록 구성
- ✓ 문항마다 연표 기준점에 실제 날짜 표기
- ✓ 정답 사건 / 판단 키워드 / 헷갈리는 사건 — 3줄 해설 전체 수록
- ✓ 3회독 관리 체크리스트 포함

33

자료

다음 사건이 들어갈 위치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한인애국단 소속 단원이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고위 장성과 관료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사건 판단 근거: _____

정답: ()

34

자료

다음 사건이 들어갈 위치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전과 보고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북만주 쌍성보를 공격, 점령하였다." 한·중 연합군은 이 전투를 계기로 북만주 일대에서 항일 공동 전선을 넓혀 나갔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사건 판단 근거: _____

정답: ()

II. 자료 제시형(복합) — 6세트 (12문항)

국민 대표 회의와 임시 정부 노선 대립

(가) 이승만 등은 워싱턴 회의에 독립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동휘와 김규식 등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인민 대표 대회에 참석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다) 임시 의정원은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미주 지역의 독립 자금을 독점한다는 이유로 이승만을 탄핵하여 면직하였다.

(라) 국내외 여러 민족 운동 단체의 대표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족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 대표 회의가 상하이에서 열렸다.

(마) 일본과의 직접적·물리적 충돌보다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바)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길은 결국 무력으로 일본을 타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나 연해주를 민족 운동의 중심지로 삼아야 한다.

(사)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기·자금·병력 등을 확보하여 앞으로 있을 독립 전쟁에 대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교육이나 경제면에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46

배열형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나)-(가)-(라)-(다) ④ (나)-(라)-(가)-(다) ⑤ (라)-(가)-(나)-(다)

사건 판단 근거: _____

정답: ()

47

보기형

위 (마)~(사)에 나타난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마)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론의 입장이다.

ㄴ. (바)는 국민 대표 회의에서 개조파가 내세운 주장이다.

ㄷ. (사)는 실력 양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 전쟁 준비론에 해당한다.

ㄹ. (바)와 (사)는 모두 외교 활동을 독립운동의 최우선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건 판단 근거: _____

정답: ()

번호	정답	판단 근거 (3줄 구조)
43	(다)	정답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 (1942.10) 판단 키워드 한국어 사전 편찬 명목 탄압 · 옥중 순국 헛갈리는 사건 브나로드 운동(한글 보급)과 혼동 주의
44	(라)	정답 사건 조선 건국 동맹 결성 (1944.08) 판단 키워드 여운형 중심 · 비밀 조직 · 국내 연락망 헛갈리는 사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광복 이후 공개 조직)와 혼동 주의
45	(마)	정답 사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1945.08) 판단 키워드 여운형+안재홍 · 치안대 운영 헛갈리는 사건 조선 건국 동맹(광복 이전 비밀 조직)과 혼동 주의

정답 및 해설 — II. 자료 제시형(복합)

번호	정답	해설 · 함정 포인트
46	② (가)-(나)-(라)-(다)	(가) 워싱턴 회의 독립 청원(1921~22) → (나) 모스크바 극동 인민 대표 대회(1922.01) → (라) 국민 대표 회의(1923.01~05) → (다) 이승만 탄핵(1925.03) 순으로 전개되었다.
47	② ㄱ, ㄷ	(바)는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의 주장이며(개조파 아님), (사)는 외교론이 아니라 독립 전쟁을 위한 실력 양성·준비론에 해당한다. △ 함정: '개조파/창조파'를 헛갈리기 쉽다. (바)=창조파(임정 해체 후 재수립), 실제 개조파는 임정을 유지한 채 개편을 주장했다. (사)는 '실력 양성'이라는 단어만 보고 외교론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48	① (가)-(나)-(다)-(라)	(가) 민족개조론 발표(1922.05) → (나) 자치 운동 대두(1920년대 중반) → (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반발 → (라) 신간회 결성(1927.02) 순으로 전개되었다.
49	② ㄱ, ㄷ	(나)의 자치 운동은 일제 통치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제한적 권리를 얻자는 타협적 주장이었다(ㄴ 오류). (라) 신간회는 자치론 세력이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체이다(ㄹ 오류). △ 함정: 신간회를 '자치론 세력까지 포함한 대연합'으로 착각하기 쉽다. 신간회는 자치론에 반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이며, 자치론 세력(최린 등)은 배제 대상이었음을 구분할 것.
50	① (가)-(나)-(다)-(마)	(가) 평양에서 시작(1920) → (나) 조선물산장려회 창립·전국 확산(1923) → (다) 사회주의 계열의 계급적 비판(1923~24) → (마) 방해·역량 부족으로 위축(1920년대 후반) 순이다.
51	② ㄱ, ㄷ	(라)는 가격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ㄴ 오류), 총독부는 이 운동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방해하였다(ㄹ 오류). △ 함정: '총독부가 방해했다'와 '가격이 올라 부담이 커졌다'는 부정적 결과 서술을 긍정 서술(지원, 하락)로 뒤집어 놓은 오답 패턴에 유의. 자료의 방향(부작용/쇠퇴)을 반대로 읽지 않도록 확인할 것.
52	① (가)-(다)-(라)-(마)	(가) 3부 성립(1923~25) → (다) 미쓰야 협정 이후 통합 논의(1925~28) → (라) 국민부·혁신 의회로 재편(1928~29) → (마) 조선 혁명군·한국 독립군 조직 및 한·중 연합 작전(1929년대 후반)으로 이어졌다.



회독 관리 체크리스트

문항별로 회독 완료 여부(✓)와 날짜를 기록하며 반복 학습을 관리하세요.

번호	1회독		2회독		3회독	
	✓	날짜	✓	날짜	✓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번호	1회독		2회독		3회독	
	✓	날짜	✓	날짜	✓	날짜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